

 식품의약품안전처		<h1>보도자료</h1>		
<b>보도일시</b>	<b>2022.2.16.(수) 14:00 이후</b>		<b>배포일자</b>	2022. 2. 16.(수)
<b>담당과장</b>	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현선 과장 (☎043-719-2252)		<b>담당자</b>	김수현 사무관 (☎043-719-2262)

<생활습관병 환자, 고령층>  
**식약처장, 건강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식단영양관리 정책방향 논의**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은 고혈압·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환자\*와 고령층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단·영양관리 제품 개발과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\*\*와 함께 2월 16일 CJ프레시웨이(서울시 마포구 소재)에서 **간담회**를 가졌습니다.

\* 고혈압, 당뇨병 등의 질병 발생에 식습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군으로 과거 성인병으로 불리다가 명칭 변경

\*\* 의료, 스마트헬스케어, 식품영양, 급식분야 등

○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혈압·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환자와 고령층 대상 맞춤형 식단·영양관리를 위한 ▲제품 개발 필요성 ▲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▲식품 제조·판매와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

□ 김강립 처장은 “생활습관병 환자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식단·영양 관리 서비스는 ‘치료(Cure)에서 예방관리(Care)’로 건강·영양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의료비\* 등 사회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습니다.

\* 대표적인 식생활 습관병인 고혈압 환자(651만명), 당뇨병(321만명), 고지혈증(220만명) 환자가 총 1,192만명으로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는 2조 3,282억원('19년, 건보공단)

- 아울러 “이번 간담회에서 얻은 소중한 정책 제언을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”이라며 “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-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식단·영양관리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- 참고로 식약처는 초고령사회와 맞춤형 영양시대를 대비해 고령자와 암환자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수 식품이 제조·판매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<붙임> 간담회 개요

**붙임****간담회 개요**

- (일시) '22. 2. 16.(수), 13:40 ~ 15:00(80분)
- (장소) CJ프레시웨이 본사(서울시 마포구 소재)
- (참석자)
  - (식약처) 처장, 식품소비안전국장, 식품위해평가부장 등 총 6명
  - (전문가) 카카오헬스케어(CIC), 서울대병원, 대한영양사협회, (주)풀무원, (주)CJ프레시웨이, 삼정회계법인, 누비랩 관계자 등 7명
- 내용 : 건강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식단·영양관리 정책방향 등 논의
- (세부일정)

시간		주요내용	비고
13:40~13:45	5'	· 개최 및 참석자 소개	
13:45~13:50	5'	· 인사말씀	식약처장
13:50~13:55	5'	· 발제자료 소개	식품소비안전국장
13:55~14:50	55'	·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유토론	
14:50~14:55	5'	· 마무리말씀	식약처장
14:55~15:00	5'	· CJ프레시웨이 현장방문 * 시니어 맞춤형 식단 등 소개	

\* 세부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